

## 朴致維의 坊刻本 佛典과 白坡大師의 「筆削記」

金 侖 壽

### 目 次

- |                  |                       |
|------------------|-----------------------|
| I. 緒 論           | IV. 「大乘起信論疏筆削記」의 韓本源流 |
| I. 朴致維의 坊刻本 出版活動 | 1. 高麗의 敎藏都監 刊本        |
| 1. 泰仁坊刻本         | 2. 鮮初의 刊經都監 刊本        |
| 2. 雲門庵刻本         | 3. 栢庵性聰 序의 雙溪寺 刊本     |
| 3. 普賢庵刻本         | 4. 涵月海源 序의 釋王寺 刊本     |
| II. 白坡의 史傳과 著述   | 5. 好隱有璣 序의 鳳停寺 刊本     |
| 1. 生涯의 時代區分      | 6. 白坡巨巖 序의 雲門庵 刊本     |
| 2. 傳記資料          | V. 結 論                |
| 3. 法統과 門人        | 附. 白坡大師年譜             |
| 4. 著述과 三大勞作      |                       |

### I. 緒 論

국문학에 있어 坊刻本小說이나 서지학에 있어 坊刻本古典은 무시할 수 없는 연구 비중이 있는 분야이나 그 연구 성과가 부실하여 바른 역사를 정립하지 못 하였다. 방각본의 역사에 있어 泰仁坊刻本은 10 여년 간에 걸쳐 12종 이상의 한문 방각본 고전을 출판하여 획기적인 사항인데 그 역사가 잘못 서술되어왔다. 태인방각본의 효시인 『詳說古文眞寶大全』 後集이나 『史要聚選』은 당시의 베스트셀러였는데 발문을 쓴 耐翁이란 존재를 규명하지 않고 崇禎後己未(1679, 肅宗5)란 紀年에 집착하여 공동 출판자인 田以采와 朴致維를 肅宗時代의 인물로 보고 그 자손이 그 명의로

\* 古典文化研究所 所長

純祖時代に 계속 刻書 사업을 했다고 오해하여 그것이 통설이 되었다.<sup>1)</sup>

필자의 연구에 의해 耐翁은 정조 말년 『古文後集』 간행시 태인현감인 趙恒鎭(1738-1803)이고 崇禎後己未는 崇禎紀年法에 있어 直後干支式, 不計紀年法으로 正計로는 崇禎後三己未(1799, 正祖23)임을 고증하여 태인방각본의 역사를 바로잡았다.<sup>2)</sup> 그리고 전이채와 박치유에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그것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正純時代に 호남 각寺에서의 刊經에 전이채나 박치유가 참여하지 않았을까생각하여 『東師列傳』, 『朝鮮佛教通史』, 『韓國佛教全書』 등을 탐색하다가 白坡巨璇(1767-1852)이 엮은 『作法龜鑑』에 있는 「養眞居士朴致維書」란 간기를 발견하였다. 梵海覺岸(1820-1896)은 백파의 三大勞作으로 起信之記, 龜鑑集, 禪文手鏡을 들었는데<sup>3)</sup> 起信之記는 「大乘起信論疏筆削記」였으며, 여기에도 앞의 8字 간기가 있었다. 記鑑은 둘 다 순조 25-27년 사이에 간행된것이니 전이채, 박치유가 正純時代人임을 증명하는 확고한 보강 자료가 되는것이다. 박치유는 또 철종 1년(1850)에 普賢庵에서 「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鬘髮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總持大隨求大明

1) 金東旭, 坊刻本에 대하여, 東方學志 11, 延世大 東方學研究所, 1970.

坊刊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安春根, 坊刻本論攷, 書誌學1, 韓國書誌研究會, 1968. (韓國出版文化史大要, 청림출판, 1987 再收)

金斗鍾, 坊刻板, 韓國古印刷技術史, 探求堂, 1973.

柳鐸一, 完板坊刻小說의 文獻學的研究, 學文社, 1981.

湖南地方刊行坊刻本の 來脈 - 泰仁 孫基祖, 田以采 朴致維 刊本 韓國文獻學研究, 亞世亞文化社, 1989.

權熙昇, 湖南坊刻本에 관한 研究, 成大 碩士論文, 1981.

千惠鳳, 坊刻本, 韓國典籍印刷史, 汎友社, 1990.

2) 金侖壽, 泰仁坊刻本 詳說古文眞寶大全과 史要聚選, 書誌學研究 5·6合, 書誌學會, 1990.

3) 梵海撰, 金侖世 譯, 東師列傳, 廣濟院, 1991. p. 271.

韓佛全編委, 韓國佛教全書 全11冊, 동국대출판부, 1989. 위 全書 제 10책에는 백파의 저술로 禪文手鏡, 修禪結社文, 作法龜鑑, 無住警策이 실렸고, 백파의 제자 有炯의 저술로 少林通方正眼, 禪源潮流, 山史略抄가 실려 있다.

朴世敏,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全四冊, 保景文化社, 1993. 여기의 제3책에는 백파의 作法龜鑑과 茶毘說이 영인, 수록되어 있다.

金煥泰,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동대 출판부, 1976. pp. 222-224.에는 모두 11종의 백파 저술이 解題되어 있다.

王大陀羅尼』(略稱 大隨求陀羅尼)를 書刻하기도 하였다.<sup>4)</sup> 박치유가 전이체와 함께 『사요취선』을 공동 출판한 정조 23년(1799)부터 『대수구다라니』를 출판한 철종 1년까지는 모두 50년간이니, 박치유의 생애와 출판활동 시기가 맞물리는 기간일 것이다.

『대승기신론소필삭기』, 『작법귀감』, 『대수구다라니』는 박치유가 방각본업자로서 서사, 간행한 불전인 만큼 여느 寺刻本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필삭기』와 『작법귀감』은 백파공선이 저술인이고 박치유가 출판인쇄인이니 이 두 불전을 통하여 당대의 禪敎의 대종장인 백파대사와 방각본 출판인 박치유가 조우한 것이며, 僧俗의 두 名人이 결합하여 불교사상 중요한 두 불전을 공동 탄생시킨 것이다. 『필삭기』와 『작법귀감』은 백파대사가 저작하고 박치유가 출판한, 방각본의 성격을 띤 불전인 것이다.

특히 『필삭기』는 고려시대부터 한국에서 누차 간행된 유서 깊은 책이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박치유가 태인에서, 운문암과 보현암에서 벌인 출판 활동을 추적하고 그의 방각본 불전은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것인만큼 그 책들의 간행 사실을 고구하고, 그 방각본 불전을 통하여 역사상 僧俗의 동반자가 된 백파대사의 사적을 밝혀 서술한다. 백파는 조선 후기 禪思想史에 있어 중요한 인물인데 그 전기 서술이 부정확하므로 가장 충실한 一次, 二次의 자료를 토대로 생애와 저술 등, 그의 역사적 존재를 바르게 기술한다. 그리고 대표적 방각본 불전인 『필삭기』를 宋本이 전래된 고려 중기본과 조선 초기본, 明本이 전래된 조선 후기본을 아울러 韓國本の 원류 관계를 훑어 박치유가 출판하고 백파대사가 저술한 『필삭기』의 위상을 가늠해 본다.

본고를 통하여 방각본에 불전이 있음을 인식하고 방각본 불전을 통하여 공존하는 박치유와 백파대사의 사적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한편, 한국 방각본 역사내지 불교 출판사를 서술할 때 일정한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다행이겠다. 줄고는 그 바탕을 제공하는 역할에 만족하고자 한다.

4)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文化財管理局, 1987, pp. 181-182. 충청남도 편 甲寺條에 陀羅尼란 이름 아래 기재되어 있는데 필자가 『眞言集』에서 原名을 찾아내었다.

## I. 朴致維의 坊刻本 出版活動

### 1. 泰仁坊刻本

泰仁에서 坊刻本을 처음 발행한 이는 田以采로서 그의 첫 출판물은 『詳說古文眞寶大全』 後集 5冊이었다. 정조 20년 丙辰(1796) 여름에 開板하였으니, 앞으로 몇년 후인 1996년에 태인방각본의 200주년이 된다. 병진년에는 또 『增刪濂洛風雅』 2책도 開刊하였는데 이 2種은 전이채의 단독 출판이었다.

정조 23년 己未(1799)에 전이채는 박치유와 공동으로 『史要聚選』 5 책을 출판하였는데 순조 6년 丙寅(1806)까지 8년간 공동 출판한 책에는 항상 “田以采朴致維梓” 라는 간기가 새겨졌다. 그 목록을 적시하면,

- 己未(1799) 『史要聚選』 5 책
- 『事文類聚抄』 3 책
- 庚申(1800) 『大明律詩』 單
- 癸亥(1803) 『孔子通紀』 3 책
- 『孝經大義』 2 책
- 『童子習』 單 (연대 미상)
- 『詳說古文眞寶大全』 前集 3 책
- 甲子(1804) 『孔子家語』 3 책
- 丙寅(1806) 『農家集成』 單
- 『新刊救荒撮要』 單

등으로 모두 10 종 23 책의 유교 사상을 담은 방각본 儒書를 전이채와 박치유가 공동 출판하였으니 대단한 동업 관계요 열성적인 刻書 사업이었다. 『고문후집』과 『염락풍아』까지 12 종의 방각본을 전이채 및 전이채가 박치유가 발행하였으니 태인은 방각본의 명소였다.

정조 20년(1796)에서 순조 6년(1806)까지 10 여년간 방각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이상은 기록이 없으니 그들의 동업이 깨졌거나 전이채의 죽음이 있었거나 박치유

의 무기명 단독 출판이나 이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순조 6년까지 박치유는 전이채와 동업자로 방각본 출판업을 경영하고 이후 사라졌다가 20년 뒤인 순조 25년 乙酉(1825)에 출판계에 다시 등장한다.

## 2. 雲門庵刻本

長城 白羊山 雲門庵에서 白坡巨璇(1767-1852)이 編校한 『大乘起信論疏筆削記』 8권 8책과 백파가 편집한 『作法龜鑑』 2권 2책을 박치유가 書寫, 刊行한 것이다.<sup>5)</sup> 乙酉(1825, 純25) 冬至日에 쓴 백파의 『筆削記』 서문에의하면 백파는 栢庵性聰(1631-1700)이 編刊한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 4권 4책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중간하였다. 그는 박치유를 同行 養眞子라 칭하며 금시의 裴使君이라 찬미하면서 박치유가 大願을 발하여 繕謄하고 또한 募緣하여 기필하니 크나큰 法施라고 찬탄하였다. 인도의 馬鳴이 『起信論』을 짓고<sup>6)</sup> 당나라 法藏이 疏를, 송나라 子璿이 『筆削記』를 엮고, 백암성충이 疏記를 會編하고, 백파공선이 校, 박치유가 刻한 것이다.

養眞子란 養眞居士 朴致維를 말한다. 박치유는 『필삭기』 8 권과 『귀감』 2 권에서 권말마다 “養眞居士朴致維書”란 간기를 남겼으니, 寫經, 刊經의 무한 공덕을 염원한 신표이다. 秋史 金正喜도 書寫功德이 禪의 第一義이고 부처가 보증한 無量福이라고 『書示虎峯』(阮堂集 卷七)에서 강조한 바 있다.

同行이란 三善知識의 하나로 서로 책려하여 질차탁마하는 道友이고 裴使君은 당나라 圭峯宗密이 지은 『禪源諸詮集都序』에 서문을 지어 勸信한 洪州刺史兼御史中丞 裴休를 말하니, 백파가 박치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게해준다. 박치유는 태인방각본을 발행할 때에도 書寫, 板刻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짐작되며 전이채와 동업한 때부터 이때까지 계산하면 27년이 지났으니 당시 30대였다고 해도 이때는 이미 50대 안팎의 나이가 되는 바, 學識을 갖춘 인물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5) 李玉金, 朝鮮朝 湖南 寺刹板에 關한 書誌의 研究, 鮮明女大 석사학위논문, 1988. 이 논문의 부록 조선조 간행 호남사찰 판본 목록 pp.96-97에 운문암 간의 ① 刊記板, ② 대승기신론소필삭기, 가 작법귀감, ④ 禪門枯頌集私記를 기재하였는데 ①은 해당없고 ④는 필사본인데 목록판본으로 잘못 안 것이다.

6) 殷貞姬, 대승기신론소 가 별기, 一志社, 1991.

宋燦禹, 大乘起信論, 세계사, 1991.

吳進釋, 愍山の 起信論 풀이, 서광사, 1992.

居士란 受戒한 在家佛子이니 그는 만년에 불문에 귀의하여 書刻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필삭기』와 『귀감』은 박치유가 방각본업자로서 刊經居士로서 자발적으로 재력을 모아 판각, 단독 출판한 것이다.

전이채는 아전으로서 당시 태인현감이었던 耐翁 趙恒鎮(1738-1803)의 지원도 받고 권이생은 조항진이 엮은 『諸史詳錄』을 참고하여 『사요취선』을 편찬하였으며 박치유는 전이채와 함께 간행했으니 이 4인은 태인방각본의 창업공신인 셈이다. 박치유가 두 佛書를 간행할 때에는 刊經功德을 심으려는 施主들의 재력을 모으고 권말이나 版心의 하단에 그 시주 명단을 새겨 보답하였다.

그 시주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면 박치유의 연고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라서 추적하긴 어렵고 다만 『대승기신론소필삭기』 제1권의 끝 첫머리에 進士 金炯厚가 있으니 이는 公人이라 찾을수 있었다. 『崇禎三庚午(1810,純10)式司馬榜目』에 보면 生員試 二等 二十五人中 넷째에 幼學 金炯厚가 있다. 字는 孟光, 戊申(1788,正12)생이니, 23세에 합격한 것이며 본은 道康, 거주지는 泰仁이고 그의 부친 憲警은 幼學이나 그의 아우 章厚, 兩厚, 理厚도 모두 司馬試에 합격하는 영예가 있었다. 『泰仁誌』에는 忠敏公 懷鍊의 後라고 하였다. 김형후는 生員인데 시주 명단에 왜 進士라 했는가. 조선 후기가 깊어질수록 생원이란 말은 샌님 등 俗稱으로 쓰였으며 생원이 생원시 합격자가 아니라 글 읽는 선비의 통칭이 되는 등 어감이 나빠져 생원이라 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茶山 丁若鏞(1762-1836)도 自撰銘에서 생원시에 합격한 존재이면서도 經義進士라고 자칭했던 것이다. 한말의 黃玿도 『梅泉野錄』에서 小科에 생원 진사의 구별이 있는데 속어로는 진사라고 통칭한다고 하였다. 程 現

박치유가 法緣을 모집하는 데에 泰仁 사람 김형후가 참여했다는 것은 박치유가 방각본 記名 출판 시절인 1806년 이후에도 태인 사람과 교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06년에는 김형후가 19세이니 그보다는 그의 선대와 친분이 있기 십상이나 박치유가 1806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 無記名으로 계속 방각본출판을 했다면 김형후와 직접 친분이 있어 그가 『필삭기』 간행에 시주로 응모했을 것이다.

道光庚子(1840,憲6)編의 『各道册板目錄』의 泰仁편에 上記 田以采朴致維의기명 출판본 12종 이외에, 『左傳』 10冊, 『禮記』 12冊, 『四書奎壁』 16冊, 『經抄』(經書類抄) 3冊, 『篆千字』 單, 『春秋』(胡傳) 10冊이 더 기재되어있으니, 이 6種도 내내 무기명 출판

의 태인방각본인 것이다. 혹시 박치유가 전이체와의 동업이 해제된 뒤로도 독자적으로 무기명 출판을 계속하지 않았을까. 1806년 이후 10여 년 더 방각본 출판업을 태인에서 경영하다가 사라진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때 김형후와 교분이 있었을 것이다.

백파가 『필삭기』에 서문을 쓴 것이 冬至日이고 『귀감』에 서문을 쓴 것이다. 다음해(1826, 純26) 2월이니 간격이 밋다. 이 동안에 두 불서가 동시에 간행될 수는 없으니, 前序는 간행 종료시에 쓴 것이고 後序는 편찬 완료 후 간행 전에 쓴 것이라 생각한다. 『귀감』의 간기(大清道光七年丁亥(1827) 春全羅道長城府白羊城雲門庵開刊)는 이듬해 봄이니 1년 동안 박치유가 『귀감』 2권을 書寫하고 2책으로 판각한 것이다. 2권 2책이 1년 걸렸으니 8권 8책의 『필삭기』가 순조 25년(1825) 연말쯤 간행 완료되었다면 난이도를 참작하여 3년 정도로 書刻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한다면 순조 23년(1823) 쯤부터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作法龜鑑』은 上下 2권 2책으로 첫머리에 백파가 순조 26년(1826) 2월에 쓴 「작법귀감서」와 범례 5조가 있고 맨 뒤에 순조 27년 봄에 백양산 운문암에서 개간한다는 간기가 있다.

『작법귀감』은 불교의 제반 의식을 여러 의식집에서 정요를 뽑아 백파의 禪思想에 입각하여 재편한 것이다. 그 서문에 의하면, 作法의 節次는 권질이 많으나 서로 빠진 부분이 있어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音韻 고저도 명백치 않아 짧은 지식의 學人이 대부분 잘못을 저지르니 불공의 경사가 도리어 불법을 훼방하는 허물이 되곤 하였다. 백파 문하의 몇 禪客이 백파에게 한 책을 만들어 校正해 줄 것을 청해서 마지못해 여러 글을 널리 탐색하여 수록하고 틀린 것을 바로잡고 요점을 뽑고 빠진 것을 보태어 일관되게 하였다. 三壇의 禮를 갖추었고 六度の 이치를 포괄하였다. 四聲의 圈點도 찍었고 句讀도 떼었다.

필자는 일찍이 聲韻表記에 따른 意味變異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백파대사도 그 점에 유의하여 글자의 通韻에 따른 의미 차이를 10자 예시하였다. 그 한들을 보면, 三은 去聲일 경우 세 번 한다는 動詞이고 平聲일 경우 셋이란 名詞이다. 聞은 去聲일 경우 명망이란 명사이고 平聲일 경우 듣는다는 동사라 하였다. 필자는 성운표기와 품사, 의미까지 三分하였으나 백파시대에 품사론이 없었던 것은 말할 것이 없지만 성운 표기에 따른 의미변이를 후학을 위하여 일일이 밝히려고 노력한 것을 볼

때 백파의 학구적인 태도를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본문에선 글자마다 高底를 나누기 위하여 平上去入의 권점을 글자의 네 귀퉁이에 표시하였다. 또 구두가 밝지 못한 이들을 염려하여 句點, 讀點을 구분치 않고 △ 으로 구점만 찍었는데 對句의 初句는 왼쪽에, 後句는 오른쪽에, 散句는 중간에 찍어 읽는 데에 지장이 없게, 의미 파악이 보다 분명하게 자상히 배려하였다.

본문에 보면 『諸般集』, 『梵音集』, 『眞言集』 등과 차이점을 실한 것이 있는데 실상이 책들을 종합하여 『작법귀감』을 편찬한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을 註記하거나 목록을 제시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본문에는 居士 五戒의 의식이 있으니 이 책을 서사, 간행한 養眞居士 朴致維도 이전에 이 절차에 따라 受戒하였을 것이다. 그는 이 책을 書刻하면서 이 조항에 이르러 남다른 감회가 있지 않았을까.

이 책의 뒤에는 백파가 지은 「看堂論」이 부록되어 있는데 이 論은 「禪文手鏡」에도 부록되어 있고, 「선문수경」의 「看堂十統說」에는 「작법귀감」을 언급하며 필요한 사람은 찾아보라고 하였다. 백파의 禪思想의 주조는 三種禪과 機用, 殺活, 眞空妙有 論이다. 「작법귀감」의 「간당론」에는 앞의 세 개념만을 거론하며 看堂의 동작을 禪家의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하였고 「선문수경」의 「간당십통설」에선 眞空, 妙有의 개념을 도입하여 象解하였다.

『작법귀감』의 巡堂式에서도 夕巡이 從右向左이므로 卽用之體라서 大機가 된다고 하였고 朝巡이 從左向右이므로 卽體之用이라서 大用이 된다고 하였다. 또 朝夕에 大機大用을 갖추었으므로 절로 機用齊施가 있기 때문에 三要를 具足한 祖師禪이고, 또 이 巡堂은 化門에 出來하기 때문에 三句가 되니 義理禪이고, 또 權에 나아가 實을 밝히기 때문에 三玄을 갖추어 如來禪이라고 하였다. 三禪 개념은 백파 선사상의 기본틀로서 그의 저술에는 대부분 관통하고 있다.

『작법귀감』은 三終本과 四終本이 있다. 三終本은 『작법귀감』 上終, 『작법귀감』 下終에다가 「看堂論」의 끝에 또 『작법귀감』 下終이라고 한 原刊本이고, 四終本은 여기에다가 「靈山作法」이 추가되고 그 끝에 또 『작법귀감』 下終이라고 한 追刊本이다. 三終本에는 雲門庵開刊의 간기가 있고 四終本에는 없지만 朴致維書는 같다. 이 「영산작법」은 『梵音集』에 수록된 「靈山作法節次」와 거의 같으나 다소 손질된 면이 있다.

박치유의 신분은 전이체와 마찬가지로 중인층인 것으로 보인다. 태인에서 전이체



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방각본 사업을 경영하다가 불문에 귀의하여居士가 되고 長城의 白羊山 운문암 등 절에서 백파에게 가르침을 받는 한편, 백파의 저술을 맡아 서사, 판각하여 출판계 인사로서의 명색을 유지하였다고 하겠다.

『필삭기』는 講院 大教科의 교재이고 교리상의 필독서이며 『작법귀감』은 의식용으로 필요한 고전인만큼 일정한 수요층이 있었고 지속적인 수요물이었으니 상업적 출판의 방각본 성격에 부합된다. 박치유는 태인 방각본으로 이름이 알려진 존재이므로 박치유라는 이름만으로도 상호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그는 불전의 영리출판, 상업화를 시도, 방각본의 영역을 불전에까지 확대한 최초의 출판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 3. 普賢庵刻本

박치유가 『작법귀감』을 순조 27년(1827)에 출판한 뒤로 또 소식이 없다가 그 23년이 지난 철종 1년(1850)에 보현암에서 『대수구다라니』를 書寫하여 板刻하였다. 보현암은 鴻山(扶餘) 萬壽山과 高山(完州) 大屯山에 있던 절 중 어느 것인지 미상이다. 『대수구다라니』의 冊板 1장이 현재 公州 甲寺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근 폐사에서 이관된 것이라 하니 홍산에 있던 절로 추정한다.

『대수구다라니』 책판을 보면 본문은 梵字로만 쓰였다. 성종 16년(1485)에 學祖 跋의 『五大眞言集』에는 梵韓漢의 三字并記式으로 수록되어 있고, 정조 24년(1800)에 楊州 道峰山 望月寺에서 映月朗奎가 重刊한 『眞言集』에는 新增條에 梵漢韓의 三字并記式으로 수록되어 있다. 박치유가 이 『대수구다라니』만 書刻했는지 다른 다라니도 함께 했는지 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아 알 수 없다.

박치유는 刻手였을 것이므로 그가 불전에 書라고만 표기했어도 실상 刻까지 行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가 간행한 불전이 위 3종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니 더 많은 문헌의 조사를 통하여 그의 출판 공적이 늘어날 것이다. 이 방각본 불전 『대승기신론소필삭기』 8권 8책과 『작법귀감』 2권 2책 및 『대수구다라니』는 박치유가 서사하여 간행한, 박치유의 단독 출판본이라고 하겠다.

박치유가 간행한 방각본은 공동 10종, 단독 3종, 그의 총 출판본은 13종이 되니, 태인방각본의 창시자인 전이채보다는 비중이 약하나 한국 방각본 역사에 있어 특별

한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는 방각업자로서 刊經居士로서 방각본 儒書 10종과 佛典 3종을 동시에 남긴 희유한 존재인 것이다.

### Ⅲ. 白坡의 史傳과 著述

#### 1. 生涯의 時代區分

백파의 일생은 三大時代와 四小時代로 구분할 수가 있다.

三大의 儒生時代는 1세에서 17세까지 儒學 공부를 하던 때이고 講伯時代는 18세에서 48세까지 31년간으로 雪坡尙彦의 법을 이어 講師로 운문암에서 開堂提接한 때이고 禪伯時代는 49세에서 86세 열반까지 38년간으로 捨教入禪하여 覺을 이루고자 진력한 시대이다.

四小는 禪伯時代를 다시 구분한 것이다. 첫째 龍門洞習定均慧時代는 49세에서 55세까지 7년간으로 楚山(井邑)의 龍門精舍에서 본격 禪定에 든 때이고, 둘째 雲門庵修禪結社時代는 56세에서 63세까지 8년간으로 法郷에 돌아와 法侶와 함께 『修禪結社文』을 지어 지침으로 삼으며 참선에 열중하던 때이고, 셋째 少林窟禪教結社時代는 64세에서 73세까지 10년간으로 教도 무시하지 않으며 禪에 조직적으로 열성을 쏟던 때이고, 넷째 淸流庵索居觀心時代는 74세에서 86세까지 13년간으로 結社參禪으로 得道하지 못하여 혼자 따로 別院에 기거하며 면벽참선하여 一大事를 마치고자 혼신의 힘을 쏟은 때이다. 雲門庵과 少林窟時代에는 信行結社를 주도하며 주요 저작을 지었고, 淸流庵時代에는 儒學者들과 護禪論爭을 벌였다.

#### 2. 傳記資料

한 인물의 생애를 기술하는 데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自述 자료를 1급 자료로 취급해야 하고 제자들의 기록은 2급 자료로, 후학과 후인들의 기록은 3급 이하 자료로 경중을 두어 취사선택해야 한다.

백파의 전기자료는 그의 문인인 雪竇有炯의 『少林通方正眼』에 수록된 「白坡大禪師行狀」이 제일 자세하고 정확한 것일 것이다. 梵海覺岸이 지은 『東師列傳』의 「白坡講師傳」은 소략, 허술하기 그지없다. 백파의 후손인 石顛 朴漢永이 지은 「白坡大師略傳」(1918년에 간행된 朝鮮佛教通史 所載)은 「行狀」과 연대가 다 달라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지금까지 백파의 전기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略傳」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점이 없지 않다.<sup>7)</sup> 「약전」 보다는 백파를 모시고 살았던 제자가 쓴 「행장」이 기본 자료가 되어야 올바른 것이다.

아무리 제자라 해도 본인보다야 정확할 수 없다. 「행장」의 龍門洞習定均慧時代는 백파의 自述인 『修禪結社文』의 제 19장의 기술 내용과 연대가 다른바 『結社文』이 正說일 것이니 이를 토대로 연대가 바르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바르게 기술된 것은 崔一凡의 「白坡禪師」가 유일할 것이다.<sup>8)</sup> 다만 이 글에서도 楚山을 平北으로 봤는데 잘못이고 石顛의 『石林草』에 의거하면 井邑이니 필자가 기술한 대로이다. 李智冠도 楚山을 井邑이라 했으나 나머지는 혼란스럽다.<sup>9)</sup> 「略傳」은 『석림초』에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石顛의 有心作은 아닌 듯하다. 『석림초』(石林隨筆과 合編하여 石顛文抄로 간행)에 수록된 글들은 백파의 法孫 후예들의 사적이 많다. 백파가 여러 명사들에게 자기 생부의 효행담을 부탁하여 지은 글을 엮은 『송계효행록』은 백파의 俗系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설두가 엮은 『소림통방정안』은 失傳된 『白坡集』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백파의 글과 관계 문건, 설두가 지어 붙인 행장까지 수록되어 있는, 백파 연구의 기본 자료이다. 특히 奇正鎮, 洪爽周, 洪顯周, 金正喜, 金祖淳 등 유림명사와 사귀며 주고받은 글들이 실려 있어 백파의 명망을 대변해 준다. 그중에서 백파가 추사에게 보낸 答

7) 김영두, 백파대사의 생애, 월간 금강, 1986년 7월호.  
陸楨培, 巨巖,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李孤雲, 靈龜山龜巖寺, 名山谷剎따라, 신문출판사, 1987.

李一影, 白坡大律師碑帖 附松溪孝行錄, 宣文出版社, 1991.

白雲, 진목대사·백파선·가남호율사, 불광출판부, 1992.

李政, 韓國佛敎人名辭典, 佛敎時代社, 1993.

8) 불교신문사,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社, 1990, p.372.

9) 李智冠, 韓國佛敎所依經典研究, 釋林會, 1983, p.471. 佛祖嫡傳七十八代的 略傳 中 第七十八祖 白坡巨巖.

書와 추사가 백파에게 답한 서신 및 추사의 「證答白坡書」와 <sup>10)</sup> 『阮堂集』에 있는 백파에게 보낸 답서 등을 잘 살펴 한 데에 엮으면 유학계의 「退溪高峯往復書」에 필적하는 불교계의 「白坡秋史往復書」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白坡大師文集』으로의 확대 내지 복원도 가능할 것이다.

### 3. 法統과 門人

「白坡講師傳」에는 白坡의 上系가 雪峯之嗣, 退庵之孫, 雪坡彦之曾, 虎岩淨之玄이라 했는데 「行狀」에는 雪坡가 入寂한 뒤 開講한 것만 기술했지 拈香嗣法에 대해 언급이 없다. 다만 「行狀」을 지은 雪竇의 다른 저술인 「山史」에서 詳述하였다. 곧 淸虛의 四大弟子의 하나인 鞭羊門에서 數傳하여 虎巖에 이르고 호암의 제자 雪坡에서 다시 四傳하여 白坡和尚에 이르렀다. 자세히는 설파 → 退庵泰瓘 <sup>11)</sup> → 雪峯巨日 → 白坡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行狀」에서 백파가 先師를 위하여 影堂을 세우는 등 했다고 했을 때의 先師는 雪坡尙彦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니 백파가 설파의 法脈을 直傳한 것이 아닐까.

백파의 제자는 「白坡講師傳」과 「雪竇講伯傳」에서 6명을 열거하였다. 곧 龜峯仁裕, 道峯國燦, 正觀快逸, 白岩道圓, 影山敬淳(影山禪伯傳), 慧庵普惠(修禪結社文跋)이다. 말년의 直傳 제자로는 雪竇有炯이 있다. 「雪竇講伯傳」에서 “參白坡會, 決大教之關, 傳一枝談柄, 坐七尺蒲團”이라 하였고, 『石林草』의 「華巖宗主雪竇堂大師碑銘」에서 “哲宗辛刻(1851, 白坡 85세, 죽기 1년 전) 春, 直傳白坡翁之鋤斧, 開講華藏丈室”이라고 하였다.

기타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는 枕溟翰醒(枕溟講伯傳 “受禪懺於白坡禪師”), 鏡潭瑞寬(鏡潭講師傳 “參龜岩白坡禪伯, 學內外典”), 錦谷壯弘(錦谷講師傳 “證禪於白坡”), 寶月慧昭(修禪結社文跋 “初參師於寶山石臺, 再參師於白山雲門, 多承法戒”), 勝和

10) 金杓瑟, 秋史의 禪學辨, 白性都頌壽佛教學論文集, 1959.

李鍾益, 證答白坡書를 통해 본 金秋史의 佛敎觀, 佛敎學報12, 東大佛敎文化研究所, 1975.

鄭炳三, 秋史의 佛敎學, 潤松文草 24,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3.

李相鉉, 秋史의 佛敎觀, 민족문화 13, 民族文化推進會, 1990.

性徹, 韓國佛敎의 法脈, 藏經閣, 1990. p.219. 白坡의 破鏡에선 秋史와는 상관없이 禪文手鏡의 근본적인 과오를 약술하였다.

11) 大宅寺誌에는 十三大宗師와 十三大講師가 기재되어 있는데 퇴암태관은 십삼대강사의 一人이다.

上人(修禪結社文序 “勝和上人, 携示其師白坡老宿結禪法語”) 등이 있다.

白坡의 下系로는 白坡 → 雪竇 → 雪乳處明 → 映湖鼎鎬(石顛漢永), 또는 白坡 → 正觀 → 鏡潭 → 幻應坦詠 등이 있다. (石林草 설두, 설유, 경담, 환옹 四碑) 여담을 든다면 백파가 지은 『禪文手鏡』의 판심 하단에는 刊經功德을 기념하는 法緣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백파의 제자 正觀快逸의 이름이 두 번 나온다. 유명한 제자 중에는 그의 이름뿐이니 그가 그 책의 간행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책의 高大藏本 뒷표지 안쪽에는 金剛山人 門洪이 龜巖의 雪乳大講伯에게 받았다는 寫記가 있으니 백파의 후예들이 백파 학설을 고수, 널리 전파했음을 엿볼 수 있다.

#### 4. 著述과 三大勞作

白坡의 문인 雪竇有炯은 『백파대선사행장』에서 백파의 주요 저작으로 『禪文手鏡』, 廣釋拈頌, 要解壇經, 金剛五解, 高峯禪要, 作法節次之重編, 起信疏記之校刊, 『松溪孝行錄』을 거론하였고, 寶月慧昭는 拈頌, 禪要, 壇經, 金剛이 더욱 妙解를 얻어 叢林에 流布되며, 『修禪結社文』은 西山의 『禪家龜鑑』, 妙喜의 『正法眼藏』과 一致한다고 同跋에서 높이 평가하였다.

石顛漢永은 『白坡大師略傳』에서 『定慧結社文』, 『禪文手鏡』, 『法寶壇經要解』, 『五宗綱要記』, 『禪門拈頌記』, 『金剛八解經』, 『禪要記』를 열거하였고, 梵海覺岸은 『圓應講伯傳』에서 白坡의 『龜鑑』 2 권, 『禪文手鏡』 1 권, 四教私記를 꼽았다.

백파의 저술은 부록 연보에 편찬순으로 기술하였는데 그 중 東大藏本인 『六祖大師法寶壇經要解』는 表題가 壇經記이니 이도 私記類에 속한다. 그리고 『修禪結社文』을 『定慧結社文』이라 하는데 이는 잘못이니 『定慧』는 普照知訥의 저서이므로 혼동허선 안 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수선결사문”을 楓臯居士述, 白坡科釋이라고<sup>12)</sup> 하지만 아니다. 楓臯 金祖淳이 述한 것은 白坡의 부탁을 받고 지은 『修禪結社文序』이며 백파가 科釋한 것도 이 序일 뿐이다. 本文 全 19 章과 社中規繩은 백파의 저작이며 分科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불교전서』 제 10 책에서 『修禪結社文

12) 韓基斗, 韓國禪思想研究, 一志社, 1991, p. 630. 白坡의 禪門結社科釋에서 楓臯居士의 저술을 백파가 해석했다고 오해하였다.

科釋』이라 題한 것은 틀린 것이니 科釋 두 자를 떼버려야 한다. 이 책 刊本에 부록된 誠智辨說과 太古庵歌人科도 백파의 저술이다.

범해각안의 『白坡講師傳』에선 起信之記가 細小하여 講學者에게 불편하므로 大字로 開刊하였고, 齋儀의 散行者를 會集開刊하고 龜鑑集이라 이름하였고, 禪門綱要의 難解者를 集註開刊하니 『禪文手鏡』이라 한다고 하였다. 起信之記 또는 起信疏記란 것은 백파가 編校한 『大乘起信論疏筆削記』 8권 8책을 말한다. 『大乘起信論疏筆削記』, 『作法龜鑑』, 『禪文手鏡』은 白坡의 三大勞作(生時刊本)이라고 하겠다.

조선후기 講院에선 履歷 과정이 있으니 沙彌科, 四集科, 四教科, 大教科가 필수이고 그 위에 隨意科가 있는데 임의 사항이다. 사미과는 朝夕誦呪, 『沙彌律儀』, 『般若心經』, 『禮懺』, 『初發心自警文』, 『緇門警訓』이고, 사집과는 『書狀』, 『都序』, 『禪要』, 『節要』이고, 사교과는 『楞嚴經』, 『起信論』, 『金剛經』, 『圓覺經』이고, 대교과는 『華嚴經』, 『禪門帖頌』, 『傳燈錄』이다.

백파는 사미과에 대해선 저술이 없고, 사집과에선 『선요』의 私記를, 사교과에선 『기신론』의 筆削記와 『금강경』의 八解鏡을, 대교과에선 『선문염송』의 私記를 編著하였다. 四教私記와 『傳燈錄私記』가 있는지는 미상이다.

백파가 지은 内外의 私記가 많다고 했는데 『선요』, 『선문염송』 및 『선문오종강요』, 『법보단경』의 私記 외에 外典의 사기까지 있는지 또한 미상이다.

백파는 18세에서 48세까지의 31년간의 講伯時代에는 저술이 하나도 없다. 49세에서 55세까지의 7년간의 龍門洞時代에도 없다. 56세에서 63세까지의 8년간의 雲門庵時代에 『수선결사문』, 『선문염송집사기』, 『선문오종강요사기』, 『대승기신론소필삭기』, 『작법귀감』 등을 저술하였고, 64세에서 73세까지의 10년간의 少林窟時代에 『선문수경』, 『금강팔해경』, 『송계효행록』, 『고봉화상선요사기』 등을 저술하였다. 74세에서 86세 열반까지의 13년간의 淸流庵時代에 『육조법보단경요해』, 『태고암가입과』, 『식지변설』을 지었고 儒者와 논쟁한 往復書信이 남아 『白坡集』을 형성한다고 하겠다.

#### IV. 『大乘起信論疏筆削記』의 韓本源流

## 1. 高麗의 教藏都監(1092-1102間) 刊本

고려의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이 初雕大藏經의 뒤를 이어 興王寺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續藏經을 간행하였다. 그 기획 목록이 宣宗 7년(1090)에 그가 엮은 『新編諸宗教藏總錄』이다. 이 『총록』을 엮은 뒤 간행에 착수하여 많은 불서를 간행했는데 간기가 있는 간본은 大安 8년(1092)부터 乾統 2년(1102)까지 발견되었으니 대략 그 기간에 진행된 것이다.

『총록』 제 3권이 海東有本見行錄下인데 여기에 『대승기신론』의 章疏34부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筆削記六卷 科文一卷 子璿述” 및 “科文一卷 淨源重刊”이라 한 것이 있는데 앞의 것은 宋의 원간본이고 뒤의 것은 정원의 중간본일 것이니 의천이 宋에서 구해 온 것일 것이다. 이 『필삭기』와 『과문』도 교장도감에서 간행했을 것이다.

현재 해인사의 대장경 판고 사이 東西의 판고에 잠판이 2천 7백여 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것도 있다. 그중 보물 제 734호인 海印寺高麗刻板 26종 110판에서<sup>13)</sup> 제 18종에 『기신론필삭기』 3판(제 3, 5, 6권내각1판)이 있는데 이 『필삭기』 散板에 대하여 필자는 교장도감에서 판각한것으로 잔존하여 어떻게 하여 해인사에 移運되어 전존한 것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산판은 30행 22자인데 속장경이 대부분 30행에 20-22자인 점에서 유사하며 속장경 책판이 홍왕사에서 符仁寺로, 부인사에서 몽고 병화로 소실되고 잔판이 해인사로 이관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총록』에 기재하여 교장도감에서 간행했다면 해인사에서 다시 간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필삭기』를 간행하였는데 이 교장도감 간본을 번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 2. 鮮初의 刊經都監(1462) 刊本

조선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고 재앙을 겪은 뒤 참회의 심정으로 불교를 독신하고 崇儒 國是下에서 세조 7년(1461)에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本司와 지방 分司에서 30여 종의 불경 및 국역불경을 성종 2년(1471)까지 간행하게 하였다.

13) 千惠鳳, 書藝 典籍 가, 國寶 全 24冊, 藝耕産業社, 1986, p. 270. 海印寺高麗刻板.

藤田亮策, 海印寺雜板攷, 朝鮮學報 138, 天理大學, 1991.

여기에서도 『필삭기』 6권이 간행되었는데 현재 제 3-4권만이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다.<sup>14)</sup> 그 권말에는 각기 天順六年壬午歲(1462, 세조8)에 朝鮮國 刊經都監이 奉敎하여 於全羅道 全州府에서 雕造한다는 간기가 있다. 동년 동부에서는 『大方廣佛華嚴經合論』 120권도 간행하였다. 위 『필삭기』가 고려속장경본의 번각본으로 여겨지니 해인사 잔판의 인본과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유사한 면이 있을 것이다.

간경도감의 간본은 고려의 교장도감이 홍왕사에서 속장경을 증수, 번각한 것이 많다. 그 간기도 『金剛般若經疏開玄抄』를 보면 “壽昌四年戊寅歲(1098)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의 原刊記에 이어 “天順五年辛巳歲(1461)朝鮮國刊經都監奉敎重修의 重刊記가 있다.<sup>15)</sup> 간경도감본의 간기는 봉교증수와 봉선조조 두 가지가 있는데 왜인가. 조조는 세조대의 명필이 板下本을 쓴 것을 판각한 것이 대부분이다. 증수는 고려 속장의 번각이라고 하는데 굳이 조조라고하지 않고 증수라고 별칭할 필요가 있을까. 필자의 추측으로는 증수는 세조대에 번각, 중간한 것이 아니라 고려 속장의 책판을 인수하여 손질하고 인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속장 책판이 그때까지 일부 온존하여 활용된 것이라고 하겠다. 松廣寺 소장의 보물 제 90, 204-207호 佛經 5종은<sup>16)</sup> 곧 고려 속장의 세조대의 후쇄본(증수간기 또는 보판 추가)이라고 할 수 있다. 후쇄본은 대체로 선명도가 떨어지나 속장 책판은 인출한 횟수가 극히 적어 3백년 뒤에도 양호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상 麗鮮 兩都監의 『필삭기』 二本을 살펴보았다. 고려의 교장도감에서 간행한 『필삭기』를 저본으로 세조 8년에 간경도감 전주분사에서 증간한 『필삭기』도 다 6권이니 宋本의 원체재일 것이다. 이하 조선 후기의 四寺庵本이모두 저본으로 삼은 것은 20권의 明萬曆本이니 兩都監本의 전통은 이어지지않았다.

### 3. 栢庵性聽序(1695)의 雙溪寺刊本

原題는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板心題는 論一字만 새겼다)으로 4권4책이

14)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探求堂, 1973, p. 166.

15) 千惠鳳, 續藏經, 韓國典籍印刷史, 汎友社, 1990, pp. 66-73.

16) 千惠鳳, 古藝, 典籍 I, 國寶 全 24冊, 藝耕産業社, 1986, p. 284, 松廣寺 佛經 5 種.



다. 題名記를 보면,

中天竺菩薩馬鳴造論  
 梁三藏法師眞諦譯論  
 唐西太原寺沙門法藏述疏  
 唐草堂宗密錄疏注論  
 宋長水法師子璿錄記  
 海東國後學性聰會編

이니, 이 책의 성립에 6인이 공헌한 것이다. 康熙 乙亥(1695, 肅21)에 백암 성총(1631-1700)이 쓴 서문에 의하면 大光明佛後身(馬鳴)이 百本了義經을 宗으로 하여 이 論을 짓고 支那에 釋流(眞諦譯)하여 唐나라 賢首大士(法藏)가 疏 곧 『大乘起信論義記』를 지어 풀이하였고, 뒤를 이어 石壁師(宗密)가 『大乘起信論廣記』를 지어 해설하였는데 번잡하였으므로 長水法師가 筆削을 가하여 절충하니 論疏의 이해에 가장 切當하였다.

涵月海源(1691-1770)이 쓴 「重刻金剛經疏記序」에 의하면 康熙辛酉(1681, 肅7) 秋에 佛經 千函萬軸을 실은 空船이 중국에서 일없이 표류해 와 호남 荏子島에 이르렀고 栢庵性聰이 丙寅(1686, 肅12) 春에 이 불경을 인수하여 많은 책을 간행하였다. 그중에 『金剛經判定記』와 『起信論筆削記』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필삭기』는 疏記가 別行된 것이라 尋討에 어려웠으므로 성총이 法藏疏에 筆削記를 會編하여 『대승기신론소필삭기회편』으로 간행하였다. 그는 이 책을 講院 履歷의 四教科의 『기신론』 교재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백암성총이 樂安(지금의 승주군 낙안면)의 澄光寺에 있을 때 병인년(1686)에 이 책들을 인수하고 이를 토대로 『淨土寶書』와 『四經持驗記』를 엮어 4월에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判定記會編』과 함께 간행하였고, 하동의 쌍계사에 있을 때인 을해년(1695) 9월에 『금강경』의 宗密疏에 子璿의 判定記를 行策이 會編한 것을 본따 『대승기신론소필삭기회편』을 엮은 뒤 간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8월에는 『緇門警訓』에 註내어 또한 쌍계사에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필삭자는 성총이 토대로 한 唐本이 後述할 好隱有璣序의 鳳停寺刊本이 저본으로 삼은 萬曆辛卯(1591, 宣24) 妙德庵刊本이라고 생각한다. 이 만력본이 90년만에 東傳하여 그 15년 뒤에 初刊된 것이다.

## 4. 涵月海源序(1753)의 釋王寺刊本

이 책은 아직 刊本을 찾지 못했다. 그 서문만이 함월해원(1691-1770)의 『天鏡集』 中卷과 鳳停寺刊本の 有璣序 다음에 실려 있다. 다만 文集의 序에는 “乾隆十八年(1753, 英29)癸酉仲夏涵月海源序”란 紀年이 없다.

해원의 「重刊起信論筆削記序」에 의하면 功勝이 起信을 짓자 斷常二執이 自破하였고 賢首의 疏와 長水의 記가 있는데 記가 東傳되지 않았을 때 東學에서 疏를 토론하는 이는 복잡한 것을 해석하기 어려워 근심했었다. 다행히 강희신유(1681)에 覺海宗風이 慈航을 불어 보내 長水의 記가 槿花鄕에 비치게 되었다. 다만 이것은 疏밖에 別行하던 것이므로 栢庵長老가 疏 아래에 記를 편집하고 간행하여 流傳시켰다. 그러나 글자는 가늘고 字行은 촘촘하며 해가 오래되어 책판이 닳아서 久遠을 기억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甄月(軌)泓, 楓嶽仁, 虛明珠, 幻宇胤, 南溟(化)鵬, 聖巖允, 翠松(明)惠, 龍城(性)海, 赤洲(範)禪, 翠雲(聖)岸 등이 別行의 唐本을 찾아 저본으로 삼고 재물을 모아 刻工을 시켜 간행하였다. 이 刊役에 해원도 기여한 바가 많았다.

별행 당본이 내내 만력본일 것이다. 위 10 명의 스님 중 괄호 안의 四字名 6인은 해원의 『천경집』 권말에 있는 門人秩에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넷은 없지만 다 해원의 제자로 여겨진다. 해원의 『천경집』은 문인 翠雲聖岸이 編錄한 것을 순조 21년(1821)에 석왕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해원은 영조 23년(1747)에 일찍이 그 스승 환성지안을 參訪한 적이 있는 晦菴定慧가 지은 『禪源集都序科記』와 『法集別行錄節要私記解』를 證正하며 「刊都序法集科解序」를 써주었는데 회암정혜의 문인과 범손의 爲先 사업에 느낀 바가 있는지 이후 자기 스승의 저술 간행에 노력하여, 먼저 喚惺志安의 『禪門五宗綱要』를 영조 25년(1749)에 釋王寺에서 序刊하였고, 志安의 行狀을 영조 26년(1750)에 짓고 『喚惺詩集』에 붙여 영조 27년(1751)에 석왕사에서 開刊하였다. 영조 29년(1753)에 해원은 그 제자 10인과 함께 『필삭기』를, 시점은 언급 없지만, 필히 또한 석왕사에서 간행하였을 것이고 刊役이 끝나가는 시점인 仲夏에 서문을 지어 완료한 뒤 가을에 南遊하였을 것이다.

刊本の 존재를 모르니 이 『필삭기』가 唐本을 그대로 간행하여 疏는 없이 記만 있

는 것인지, 백암성총의 會編 체재를 지녔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봉정사간본에 그 서문이 나란히 실린 것으로 보아 같은 계통으로, 그리고 原題도 알 수 없지만 重刊序에 따라 『起信論筆削記』로 추정한다.

#### 5. 好隱有璣序(1769)의 鳳停寺刊本

原題는 『起信論疏筆削記』(板心題도 같다.)로 20권 5책(高大藏本)이다. 첫머리에 好隱有璣(1707-1785)의 「重刻起信論疏筆削記序」가 있는데 有璣의 『好隱集』 1권에는 「重刻起信論疏記序」로 실려 있다. 다만 文集의 序는 “崇禎記元後三己丑(1769, 英45) 九月辛卯海東後學有璣謹書”라는 紀年이 없다.

有璣의 重刻序에 의하면 『기신론』은 馬鳴尊者가 지은 것이고 賢首國師가 疏한 것이며 石壁, 長水가 廣記, 略記한 것이다. 기축년(1769) 가을에 유기가 가야산 중에 있었는데 어느날 저녁 安東 鳳停寺의 중 昇一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절에 淸虛의 門孫인 旨閑, 觀性 두 長老가 唐本 起信疏記를 얻어 閑老는 물건을 맡고 性老는 교정을 맡았는데 서문을 맡을 자가 없어 부탁드리러왔다.”고 하였다. 그 부탁을 받고 有璣는 서문만 써주었지 그 刊役에는 달리 공헌한 것이 없다. 그 점은 後述할 白坡 巨璇은 물론 백암성총이나 함월해원이 간행 주체로서 住錫處에서 직접 서문을 쓴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곧 撰序者에 불과하고 序刊者는 못 되는 것이다. 이 서문을 써준 유기는 정조 즉위년(1776)에 『新編普勸文』을 편찬하기도 하였지만 간행은 편찬 의뢰자 覺醒이 하였으니, 刊經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 같다.

高大藏本을 살펴보면 20권 5책인바 各冊에 4권씩 수록되었다. 각권의 끝에는 卍切 조항이 있어 切음을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長水沙門子璿錄” 단일 題名記에서도 알 수 있듯이 法藏疏가 없이 子璿의 筆削記만이 수록되어 있는, 곧 疏記 別行의 唐本 원체재인 것이다. 직접 당본을 저본으로 한 것인지 당본을 저본으로 한 함월해원의 석왕사본을 저본으로 한 것인지 미상이나 여기에 함월해원의 중간서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後者쪽이 아닐까.

그렇다면 1753년과 1769년에 간행되어 16년밖에 간격이 안 생겨 의아할 것이다. 하지만 刊經은 커다란 공덕이 되기 때문에 못해서 야단이니 시간차도 있고 지역도 다르기에 상관이 없는 것이다. 晦庵定慧의 都序法集科解도 1747년에 吉州의 吉祥菴

에서 初刊되었는데 1757년에 安陰의 長水寺에서 重刊되었다. 그 초간, 중간을 다 주도한 豊谷總潤의 重刊序에 의하면, 책판은 북방에 있고 회암의 제자인 龍巖大師가 長水寺에서 중간하기를 원하다가 그냥 죽어 그 제자인 豊谷이 뜻을 이어 刊施한 것이다.

鳳停寺刊의 『필삭기』 제18권 끝에서는 華京居士 陸彦楨이 돈을 대어 이 기신론 소필삭기 제18권을 새긴다고 하였고, 제 19권 끝에서도 靑浦居士 諸從禮가 돈을 대어 이 기신론소필삭기 제 19권을 새긴다고 하였으니, 唐本이 원래 20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권말에선 또 眞州(江蘇省儀眞縣)의 王國英書, 吳縣(강소성崑山縣南)의 仇鵬刻 또는 溧水(강소성江寧縣南)의 毛有光刻이라고 서, 刻자까지 밝혔고, 권말마다 “萬曆辛卯(1591,宣24)春 淸涼山(在강소성江寧縣西) 妙德庵識”란 간기가 있으니, 원형을 보존하여 번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송나라 子璿(?-1038)이 엮은 『筆削記』는 6권, 科文은 1권이니 원본이 과문을 합해도 7권밖에 안 되는데 明刊本은 20권이나 된다. 刊經 공덕을 위해 20 명의 施主 居士가 간행비를 대고 分卷, 分刊한 것인가. 제 1권에서 제17권까지 시주의 명단이 없어 단언키 어렵다. 백과대사가 만년을 보냈던 靈龜山에 1916년에 소장된 新大藏(石林草의 同緣起文 참조)인 上海 佛界의 頻伽精舍校刊大藏經(1913년刊)의 『起信論疏筆削記』(東大藏本)도 20권이니<sup>17)</sup> 明萬曆本이 본디 20권이었던 것이다. 鳳本의 제 20권의 끝에는 別張에 봉정사의 施主 祝願 및 大施主秩과 乾隆己丑鳳停寺開板의 간기가 있다. 이 책의 간행 주체인 月岩 堂 旨間과 雪月觀性의 이름도 시주질에 당연히 보인다.

#### 6. 白坡巨璣序(1825)의 雲門庵刊本

原題는 『大乘起信論疏筆削記』이고 板心題는 『起信疏記』이다. 8권 8책이다. 題名記는 백암성총서의 쌍계사간본과 동일하나 “海東國後學性聰會編”은 삭제되었다. 原題에서도 會編 두 자를 삭제했으나 이 간본은 會編本을 저본으로 중간한 것이다.

첫머리에 백과공선(1767-1852)의 「起信疏記重刊校正序」가 있고 다음에 「馬鳴菩

17) 大正新修大藏經에 수록된 起信論疏筆削記도 같다. 이의 底本은 明萬曆十九年(辛卯)刊의 增上寺報恩藏本이고 甲本은 延寶五年(숙종3년, 1677)刊의 宗教大學藏本이니, 萬曆本이 東傳하여 18년차로 일본에서 먼저 간행되고 조선에서도 간행된 것이다.

薩行續」, 「凡例」 7조, 백암성종의 「刻起信論疏記會編敍」가 있고 본문이 펼쳐진다.

道光乙酉(1825, 純25) 冬至日에 쓴 백파의 중간교정서에 의하면 先劫에 도를 이루어 光明世尊이라 불린 이가 사바세계에 떨어져 馬鳴大士가 되어 百本經에서 了義를 宗으로 하여 『기신론』을 짓고, 賢首, 圭山이 述疏하고 石壁, 長水가 錄記하였는데 疏記가 別行하여 尋討가 쉽지 않았는 바, 康熙乙亥(1695, 肅21)에 栢庵師가 錄記, 注疏를 一軸에 彙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記 부분이 小字雙行이라 글자가 가늘고 희미하며 또한 科記가 錯雜한 것이 많아 學人들 눈을 어지럽혔다. 그래서 龔선은 重刻을 도모하여 재단하고 글자가 빠진 것, 덧붙은 것, 잘못된 것, 會科, 編記의 뒤엎긴 것을 文義를 찾아 改定하였다. 그 개정 사실은 범례 7조에 자세하다. 이 범례를 통해 이 『필삭기』가 단순한 간행물이 아니고 백파龔선의 編校 勞作이 되는 저술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다.

범례의 제 1조는 취지를 설한 것이고 제 2조는 글자가 작은 것을 크게 썼다는 것이고 제 3조는 記中에 疏科가 錯雜한 것을 일체 長水의 科圖에 따라 질서있게 보충하였다는 것이고 제 4조는 疏文의 誤字, 錯簡을 바로 잡았다는 것이고 제 5조는 論, 疏, 記를 頂格이나 黑白圈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이고 제 6조는 卷首에 있는 會編人題 곧 “해동국후학성총회편” 과 “筆削記序云” 5자를 삭제하였다는 것이고 제 7조는 論은 1권, 疏는 2권, 記는 4권인데 分卷에 의미는 없고 紙數가 번다하여 別卷한 것일 뿐이므로 지금 新刻은 大字라서 지수가 배가하여 8권으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校正時 頁數 표기를 참고로 보이면 “第一卷 第二十葉 下五行, 第三卷 第四葉 上五行”인 바, 한 冊版을 葉으로 칭하며 前面, 後面을 上下로 구분하였다.

○ 刊本은 前述한 대로 坊刻本業者였던 朴致維가 居士가 되어 大願을 발하여 8권을 書寫하고 募緣하여 板刻한 것인데 박치유가 간행을 제의한 것인지 백파가 먼저 編校하고 교재로 쓰기 위하여 간행을 부탁한 것인지 서문에는 언급이 없다. 백파가 雲門庵에서 修禪結社하며 禪書를 짓는 한편 禪學에 중요한 論據가 되는 『기신론』을 정밀히 연구한 결과로서 이 『필삭기』 編校本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백파대사가 『필삭기』를 자발적으로 서사, 판각한 박치유를 극구 칭찬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박치유와 전이체가 純坊刻本古典의 출판을 위하여 權以生에게 『史要聚選』의 편찬을 의뢰, 공동으로 간행한 것과 같이 박치유가 방각본 불전의 출판을 위하여 백파대사에게 『필삭기』의 편교를 의뢰, 스스로 간행한 것이 아닌가 생

각한다.

『少林通方正眼』에는 백파가 그 生父 松溪 李宗煥의 孝行을 기념하기 위하여 永明尉 海居 洪顯周에게 墓誌名을 부탁하자 영명위가 盡力하겠다고 憲宗4년(1838) 쯤 회답한 서신이 수록되어 있다. 그 답서에 “기신론 8책을 法施하시니 潛心 究索할 것입니다. 妙悟를 얻는다면 참으로 慈悲의 念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고 하여 『大乘起信論疏筆削記』 8책을 백파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을 사례하였다.

이상 明萬曆本의 東刊四本을 고찰하였다. 백암성총서(1695)의 쌍계사간본은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 4권 4책이고, 함일해원서(1753)의 석왕사간본은 『起信論筆削記』이고, 호은유기서(1769)의 봉정사간본은 『起信論疏筆削記』 20권 5책이고, 백파 금선서(1825)의 운문암간본은 『大乘起信論疏筆削記』 8권 8책이다. 안변의 석왕사와 안동의 봉정사는 한국의 東部に 있는데 두 간본은 한 계통으로 간주되고, 하동의 쌍계사와 장성의 운문암은 西部에 있는데 두 간본의 계통은 같다. 곧 동부의 二本은 『필삭기』 단행본이고 서부의 二本은 疏記 會編本이다. 金剛疏記의 記는 判定記이고 起信疏記의 記는 筆削記임을 유의할 일이다. 白坡大師의 『筆削記』는 단순한 刊經이 아닌 그의 三大勞作의 하나인 編校本임도 유의할 일이다.

## V. 結 論

아전이었던 田以采는 당시 泰仁縣監이었던 耐翁 趙恒嶺(1738-1803)의 후원과 담양전씨 족친의 지원으로 정조 20년(1796)에 최초의 태인방각본인 『詳說古文眞寶大全』 後集을 간행하고 폭발적인 수요에 의한 판매 수익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增刪濂洛風雅』도 간행하였다. 정조 23년(1799)에는 朴致維와 손잡고 權以生에게 『史要聚選』의 편찬을 의뢰, 전이채와 박치유 공동 명의로 출판하여 坊刻業을 본격 전개하였다. 박치유는 순조 6년(1806)까지 『事文類聚抄』, 『大明律詩』, 『孔子通紀』, 『孝經大義』, 『童子習』, 『古文前集』, 『孔子家語』, 『農家集成』, 『新刊救荒撮要』 등 10종의, 유교 사상이 담긴 태인방각본을 공동 출판하였다.

순조 7년(1807) 이후에는 태인방각본의 기명 출판 시대는 막을 내렸다. 박치유는 순조 말년에 방각업자로서 佛門에 귀의하여 居士가 되었다. 長城 白羊山 雲門庵에

있던 白坡 巨璇(1767-1852)의 倚重을 받으며 백파가 編校한 『大乘起信論疏筆削記』 8권 8책을 순조 25년(1825)에 몸소 書寫, 완간하고 다시 백파가 편집한 『作法龜鑑』 2권 2책을 순조 27년(1827)에 또한 서사, 완간하였다. 이 두 佛書의 卷末마다 “養眞居士朴致維書”란 書寫功德을 기리는 간기가 있어 그의 信心을 짐작케 한다. 그는 또 普賢庵에서 1850년(哲1)에 「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鬘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總持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약칭大隨求陀羅尼)를 書刻하기도 하였다. 박치유는 방각본업자로서 刊經居士로서 10종의 태인방각본을 공동 출판, 3종의 庵刻本을 단독 출판, 모두 13종의 儒佛古典을 출판한(1799-1850 출판활동) 한국 방각본 역사상 특이한 존재인 것이다.

백파 公선은 순창군 무장면에서 덕흥대원군의 후손으로 태어나 17세(1783)까지 儒生時代를 보내고 18세에 선운사에서 출가, 득도하고 48세(1814)까지 講伯時代를 전개하며 講主로서 후학을 가르쳤다. 敎迹의 허무를 깨닫고 楚山(井邑의 古稱)의 龍門洞에 들어가 55세(1821)까지 習定均慧하고 56세에 古廬 白羊山 雲門庵에 들어가 修禪結社하고 64세(1830)에는 순창의 靈龜山 龜巖寺址로 넘어가 華藏臺를 중수하고 少林窟을 창건하여 窟居하며 禪敎結社하고 74세(1840)에는 白羊山 先師의 영당 위에 清流庵을 짓고 혼자 면벽 참선하며 86세(1852)로 入寂할 때까지 大事를 了辦하고자 하였다. 49세에서 86세까지가 禪伯時代이다.

백파公선은 講伯時代와 龍門洞習定均慧時代에는 저술이 없고 50대 후반 60대 전반인 雲門庵修禪結社時代에 비로소 저술하여 『修禪結社文』, 『禪門拈頌集私記』, 『禪門五宗綱要私記』, 『大乘起信論疏筆削記』, 『作法龜鑑』을 편찬하였고, 60대 후반 70대 전반인 少林窟禪敎結社時代에 『禪文手鏡』, 『金剛八解鏡』, 『高峯和尚禪要私記』, 『松溪孝行錄』을 편집하였고, 70대 후반 80대 전반인 清流庵素居觀心時代에 『六祖大師法寶壇經要解』, 『太古庵歌入科』, 『識智辨說』, 『白坡集』(失傳)을 저술하였다. 『선문수경』 및 『대승기신론소필삭기』와 『작법귀감』은 백파의 三大勞作이다.

『필삭기』는 고려의 敎藏都監(1092-1102間)에서 간행하여 속장경에 수록된 것과 세조 8년(1466)에 刊經都監에서 중간한 것이 있는데 兩都監本의 저본은 宋刊本이고, 또 栢庵性聰(1631-1700)序(1695)의 雙溪寺刊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 4권 4책, 涵月海源(1691-1770)序(1753)의 釋王寺刊 『起信論筆削記』(失傳), 好隱有璣(1707-1785)序(1769)의 鳳停寺刊 『起信論疏筆削記』 20권 5책, 白坡巨璇(1767-

1852)序(1825)의 雲門庵刊『大乘起信論疏筆削記』8권 8책의 四寺庵本이 있는데 저본은 明萬曆本이다. 釋刊과 鳳刊은 宋나라 子璿이 엮은 『필삭기』만 수록한 원본 체제의 답습이고 雙刊은 栢庵이 『필삭기』에 法藏疏를 會編한 것이고 雲刊은 白坡가 會編本의 小字를 大字로 改刊하며 校勘을 가한 것이다. 백파의 『필삭기』가 校勘本인 점이 『필삭기』源流史上 특기할 만하다. 『귀감』은 三終本과 四終本이 있으니, 三終本은 上下卷에 다가 『看堂論』을 原附한 것이고 四終本은 거기에 『靈山作法』이 追刻된 것이다.

『작법귀감』의 三終本에는 운문암 개간의 간기가 있지만 그 四終本과 『대승기신론소필삭기』에는 절의 간기가 없고 대신 태인방각본의 인명 상호로 유명한 박치유라는 상호용 인명 간기가 있으며, 『기신론』의 白坡序에서는 박치유가 재력을 모아 스스로 書寫, 板刻한다고 하였으니 태인방각본의 출판업자가 방각본의 요건으로 佛典을 간행한 것이다. 절의 간기가 있는 『작법귀감』의 삼종본과 『대수구다라니』도 방각본 업자의 출판본이므로 방각본의 성격을 갖는 불전이라고 할 수 있다.

3種밖에 坊刻本佛典이 출판(아니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교 중심의 시대에 불교의 전적이 방각본에 동참한 것은 儒佛竝立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며, 그를 주도한 박치유는 태인방각본의 공동 출판, 방각본 불전의 단독 출판을 통하여 방각본 역사상 금자탑을 쌓았다고 높이 평가할 만하며, 『대승기신론소필삭기』와 『작법귀감』이라는 방각본 불전을 통하여 백파대사는 저작자로 또는 왕족 출신의 高僧으로, 박치유는 출판인쇄인으로 또는 중인 출신의 居士로 평등하게 공존, 영생하여 한국문화사상 특별한 광채를 발휘한다고 하겠다.

## 附. 白坡大師年譜

### 1. 儒生時代

1세(1767, 英43) 4월 11일에 茂長縣(지금의 고창군 무장면)에서 태어나다.

부친은 松溪 李宗煥으로 德興大院君의 十世孫이다. 모친은 金海金氏이다. [白坡大禪師行狀]



17세(1783, 正7) 禪雲寺에서 과거 공부로 『맹자』를 외우다. 틈틈이 불경을 열람하다가 目連救母 玄沙度父의 고사를 보고 출가할 결심을 하다. 부모는 당연히 극력 만류하다. [行狀]

## 2. 講伯時代

18세(1784, 正8) 4월 8일에 부모 몰래 출가하다. 恩師는 詩憲, 戒師는 蓮谷이다. [行狀]

24세(1790, 正14) 9월 그믐에 雪坡尙彦에게 具足戒를 받다. [行狀]

25세(1791, 正15) 1월 3일에 설과 入寂하다. [行狀]

25세(1792, 正16) 雲門庵에서 開講하다. [行狀]

29세(1795, 正19) 생부 松溪公 별세하다. [松溪老行錄]

## 3. 禪伯時代

### 3. 1 龍門洞習定均慧時代

49세(1815, 純15) 가을에 講衆을 버리고 楚山(井邑의 古稱)의 용문동에 들어가 習定均慧하다. [修禪結社文 行狀]가 漢上處士 洪景漢이 楚山에 南遷하여 終老하며 龍門精舍를 방문하여 白坡長老와 空門至契를 맺다. 洪은 『精校四山碑銘注解』를 지은 사람이다. [石林草]

52세(1818, 純18) 11월에 璿源後人 松溪翁 孝行錄을 長城人 蘆沙 奇正鎮(1798 - 1875)이 짓다. [孝行錄]

55세(1821, 純21) 8년 동안 도를 깨치지 못하여 봄에 금강산, 오대산 등 명산을 유력하며 고승을 참방하다. 눈밝은 이를 찾고자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다. [結社文]

철원군 寶蓋山 石臺庵에 있을 때에 寶月慧昭가 참방하다. [結社文跋]

### 3. 2 雲門庵修禪結社時代

56세(1822, 純22) 古廬(白羊山 雲門庵)에 돌아와 여러 法侶와 修禪을 위한 結社

體를 조직하고 4월 8일에 『修禪結社文』을 짓다.[結社文] ○ 楓臯 金祖淳(1755 - 1831)이 「修禪結社文序」를 짓고 백파가 그 序를 科釋하다. [結社文序, 少林通方正眼] ○ 影堂을 세워 先師의 眞影을 봉안하다. [行狀] ○ 김조순이 眞影殿 편액 세자를 써서 보내다.[正眼]

58세(1824, 純24) 6월 하순에 『禪門拈頌集私記』를 짓고 序를 쓰다.[東大藏本]

○ 7월에 『禪門五宗綱要私記』를 짓고 跋을 쓰다.[上同]

59세(1825, 純25) 冬至에 『大乘起信論疏筆削記』를 編校하고 序를 쓰다. [東大藏本] ○ 朴致維가 『필삭기』 8권을 書寫 刊行하다.[上同]

60세(1826, 純26) 2월에 『作法龜鑑』을 짓고 序를 쓰다.[上同]

61세(1827, 純27) 봄에 朴致維가 『龜鑑』 2권을 書寫하여 白羊山 雲門庵에서 간행하다.[上同]

62세(1828, 純28) 11월에 淵泉居士 金履陽(1755 - 1845)이 「松溪李公孝行錄序」를 쓰다.[孝行錄]

### 3. 3 少林窟禪教結社時代

64세(1830, 純30) 운문암에서 淳昌의 靈龜山 龜巖寺址로 옮기고 華藏臺를 수선하고 少林窟을 창건하여 머물며 禪教結社會를 조직하여 禪教雙修를 실천하며 『社中清規』를 짓다.[正眼] ○ 奇正鎭이 『華藏臺少林窟禪教結社會記』를 짓다.[上同]

66세(1832, 純32) 『禪文手鏡』을 짓고 간행하다.[國譯東師列傳] 題名이 “靈電山水林항묘旋集說”이니 소림굴시대의 저술이다.

67세(1833, 純33) 7월에 『金剛八解鏡』을 짓고 少林室에서 序를 쓰다.[東大藏本]

71세(1837, 憲3) 3월에 金正喜의 生父 金魯敬이 별세하다. 추사에게 松溪孝行에 대한 글을 부탁하자 상중이라고 거절하다.[正眼]

72세(1838, 憲4) 윤4월에 「題松溪行錄後」를 參奉 洪在巒이 쓰다.[孝行錄]가 永明尉海居 洪顯周에게 松溪의 墓誌銘을 부탁하며 『대승기신론소필삭기』 8책 1질을 기증하다.[正眼]

73세(1839, 憲5) 2월에 永明尉 洪顯周가 「松溪李孝子墓誌銘」을 짓다.[孝行錄] ○ 3월에 淵泉 洪奭周(1774 - 1842)가 「松溪李孝子行錄序」를 쓰다.[上同] 7월에 『高峯和尚禪要私記』를 짓고 少林窟에서 跋을 쓰다.[東大藏本] ○ 이해에 『松溪孝行錄』을

여다.[孝行錄]

### 3. 4 清流庵榮居觀心時代

74세(1840, 憲6) 白羊山 先師의 影堂 위에 小屋을 따로 지어 놓고 面壁 參禪하며 죽기 전에 도를 깨치어 大事를 마치려고 기약하다.[行狀] ○ 참봉 洪在麟과 서신을 통해 儒佛 논쟁을 벌이다. 寂靜處에 한 암자를 따로 짓고 쓸쓸히 살며 오직 상좌 중 한 명에게 공양을 맡긴 채 經文을 끊고 오로지 觀心法에 용력하였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法筵을 열어 經義를 연설하여 후학을 지도하는 것이 面壁跏坐보다 훨씬 낫다고 홍재혁이 충고하다.[正眼]

76세(1842, 憲8) 홍석주가 별세하자 그의 아우 홍현주에게 서신을 보내어 위로하다.[上同]

77세(1843, 憲9) 4월에 추사 김정희(당시 58세)가 백파의 書信 所說을 妄證이라고 하며 15조로 비판하여 회답하다.[證答白坡書]

79세(1845, 憲11) 1월에 『六祖大師法寶壇經要解』를 짓고 序를 쓰다. “少林窟 壁觀沙門巨璇要解”라고 題한 것에서 벽관은 面壁參禪함을 말함이다.

84세(1850, 哲1) 9월에 『海東初祖高麗國師太古和尚太古庵歌入科』와 『識智辨說』을 짓고 白羊 清流庵에서 壇經要解 뒤에 연이어 쓰다. “咸豐一年庚戌(1850)九月”의 紀年은 함풍 즉위년 구월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東大槪本]

86세(1852, 哲3) 4월 24일에 入滅하다.[行狀] ○ 문도들이 龜巖寺에 白坡堂浮屠를 雪坡의 부도 옆에 세우다.[遺物] ○ 나중에 백파의 문인 正觀快逸의 부도도 설파의 옆에 세워졌다.[上同]

### 4. 身後事

철종 7년(1856) 3월에 문도 白巖과 雪竇가 부탁하여 秋史가 白坡大律師碑를 짓고 쓰다.[石林隨筆]

철종 9년(1858) 5월에 禪雲寺에다 白坡大律師碑를 세우다.[遺物] ○ 이때쯤 추사가 제공한 達摩像을 白坡影幀으로 삼아 華藏臺에 봉안하다.[행장, 산사] ○ 이때쯤 설두가 백파의 글과 부속 문건을 모아 『少林通方正眼』을 편찬하다.[正眼]

철종 11년(1860) 3월에 문인 慧庵普惠가 荷屋 金左根(1797-1869)의 시주로 天磨山 奉印寺에서 백과의 『修禪結社文』을 간행하다.[結社文跋]

## ABSTRACT

## A Study of Chiyou Park's Bang-kak-bon Bul-jeon and Master Backpa's pil-sak-ki

Yoon-Soo Kim

Chiyou Park(朴致維) published Bang-kak-bon(坊刻本) at Taein(泰仁) between 1799-1806 with Ichae Jun(田以采). They published Sa-yo-chwi-sun(史要聚選) and Sa-moon-you-chwi-cho(事文類聚抄) in 1799. Between 1800-1806 they published Taemyongyoolsi(大明律詩), Kongiatongki(孔子通紀), Hyokyongtaei(孝經大義), Tongjaseup(童子習), Komoonchunchip(古文前集), Kongjakao(孔子家語), Nongkachipsung(農家集成), and Koohwangcharlyo(救荒撮要) until they departed each other in publication of Bang-kak-bon(坊刻本).

In 1823 Chiyou Park(朴致維) published again Sayochwisun(史要聚選) at Kookockchae(九曲齋). He published Taeseungkisinronsopilsacki(大乘起信論疏筆削記) and Chackpupkwikam(作法龜鑑) between 1815-1827 with Backpataesa(白坡大師) who was a Buddhism Monk of Woonmoon-am(雲門庵) in Backyang Mountain(白羊山). Backpataesa(白坡大師) was born in 1767, became a monk in 1784 and died in 1851. Backpa(白坡) was a famous Buddhism scholar who disputed the truth of Zen(禪) with Choosa, Chunghee Kim(秋史金正喜). He rewrote Taeseungkisinronso-pilsacki(大乘起信論疏筆削記), Chackpupkwikam(作法龜鑑), and Zenmoonsookyong(禪文手鏡).

Chasun(子璿) of Songdynasty(宋朝) rewrote Pilsakcki(筆削記) before Backpa(白坡), which was published at Myouduck-am(妙德庵) of Myongdynasty(明朝). It was republished in Korea several times which are called Sankyesa Copy(雙溪寺本) of Back-am(栢庵), Suckwangsa Copy(釋王寺本) of Hamwol(涵月), Bongchungsa Copy(鳳停寺本) of Hoeun(好隱), Woonmoon-am Copy(雲門庵本) of Backpa(白坡).

Chackpupkwikam(作法龜鑑) is a book of Buddhism worsip form which was made of Chaepanmoon(諸般文), Paneunchip(梵音集), Chineunchip(眞言集).

As a Bangkakbon(坊刻本) publisher, Chiyou Park believed in Buddhism so heartily that be published Bangkakbon(坊刻本) and Amkakbon(庵刻本) which are saved until today.